

---

# 해외 중소선화주 상생방안 사례 조사를 위한 출장 보고

---

2022. 11. 9(수) ~ 11. 11(금)

**KBIZ** 중소기업중앙회

# 1

## 출장 개요

### □ 출장 개요

- 기 간 : 2022. 11. 9.(수) ~ 11. 11.(금)
- 장 소 : 일본 도쿄
- 목 적 : 항만물류 시찰 및 인터뷰 통한 선화주 상생사례 조사
- 추진배경
  - 최근 해운운임 급변 관련, 중소화주 체감 물류비 부담 증가
  - 대기업 2차 물류업체와 선주, 중소화주간 상생방안 마련 필요
- 출 장 자 : 국제통상부 임경민 과장, 주여름 대리
  - \* (외부) 한국해운협회 안제영 과장, 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

(참고) 본회-해운협회, 중소화주-국적 해운선사간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('21.10)  
→ 「대기업 2차물류업체-중소포워더-해운업계 상생방안」 연구용역 진행(~'22.12)

### □ 주요 일정

날 짜	시 간	내 용
11.9(수)	09:00~11:30	[이동] 김포 → 도쿄/하네다(KE2101)
	15:00~18:00	[일본선주협회(JSA)] 선화주 상생사례 인터뷰
11.10(목)	10:00~13:30	[HMM기항터미널] 컨테이너 터미널 시찰 및 간담
	14:30~15:30	[팩마린일본지사] 선박 검사 전문가 인터뷰
	16:00~17:30	[일본해사신문] 해운경기 전망, 선화주 상생 관련 인터뷰
11.11(금)	11:45~12:30	[이동] 도쿄/하네다 → 김포(KE2102)

□ 일본선주협회(JSA) 관계자 인터뷰

○ 일 시 : '22. 11. 9(수) 15:00~18:00

○ 장 소 : 일본선주협회 회의실(도쿄)

○ 주요내용

1) 일본의 해운시장 상황

- 과거 한진 파산 이후 일본 해운업계의 일본 내 북미시장 점유율이 50%이상으로 늘어난 상황. 특히, 일본은 장기계약을 선호하는 구조로 많은 화주가 60%이상의 화물을 장기계약함
- 일본의 주요선사가 통합해 ONE를 설립했으나,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어 정부의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정책적 대상으로 다루기는 어려우나, 장기계약을 기반으로 한 선화주간의 신뢰 관계가 있음. 다만, 중소화주 및 선주 상생을 위해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제재는 필요

2) 일본의 포워드 시장 구조

- 중소화주 물량은 중소포워더가, 대형화주 물량은 대형포워더(3PL)와 계약하고 있음. 특히, 한국과 다른점은 대기업들이 물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포워더(3PL)시장이 발전

3) 기타 사항

- 최근 일본 주요 대기업의 경우 운송입찰 평가 시 ESG를 반영해 친환경 선박을 이용하는 선사에게 더 높은 운임을 지불하는 등 자발적 비용 분담을 실천 중

○ 참석자

- (중앙회) 국제통상부 임경민 과장, 주여름 대리
- (외부) 해운협회 안제영 과장, 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
- (일본선주협회 관계자) 세츠오 노무라 연구원, 카즈시 오모리 차장, 마츠다 타쿠마 교수

○ 사진자료



□ 도쿄 컨테이너 터미널 방문

○ 일 시 : '22. 11. 10(목) 10:00~13:30

○ 장 소 : HMM 기항터미널(도쿄)

○ 주요내용

1) 일본 주요 항만시설 시찰 : 벌크, 컨테이너 등 주요 시설 견학

2) HMM 일본 법인 대표(법인장) 등 간담

- 일본, 화주들이 선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장기화하는 경향이 많음

- 따라서, 화주가 해운운임 하락에 따른 급격한 운임 인하를 요구하거나 선주가 해운운임 상승에 따른 급격한 가격 상승을 바로 반영하지 않는 분위기

- (상생관련) 최근 HMM의 경우 한국으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해서 일부 낮은 고정환율을 적용하는 등 화주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음

○ 참석자

- (중앙회) 국제통상부 임경민 과장, 주여름 대리

- (외부) 해운협회 안제영 과장, 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

- (HMM) 최기우 법인장, 윤소연 사원

○ 사진자료



□ 일본 해사신문 인터뷰

○ 일 시 : '22. 11. 10(목) 16:00~17:30

○ 장 소 : 일본해사신문 회의실

○ 주요내용

1) 일본 내 선화주 물류 계약 관행 조사

- 화주-선사 간 장기계약 위주로 진행. 일본은 제조업 중심국가로 비용의 평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장기계약을 통해 변동폭을 최소화하고 있어, 머스크 등 외국계 기업이 진출하기가 까다로운 시장

2) 중소화주에 대한 정부 지원책 또는 상생 사례

- 한국정부처럼 일본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(일본 선사의 본사 해외이전) 특히, 화주를 대변할 수 있는 협회가 없어 화주의 요구사항 또한 듣기 어려운 구조

○ 참석자

- (중앙회) 국제통상부 임경민 과장, 주여름 대리
- (외부) 해운협회 안제영 과장, 성결대학교 한종길 교수

- (해사신문) 요헤이 미사키 부편집장, 키요후미 모토키 차장, 타카시 요시오카 과장

○ 사진자료

